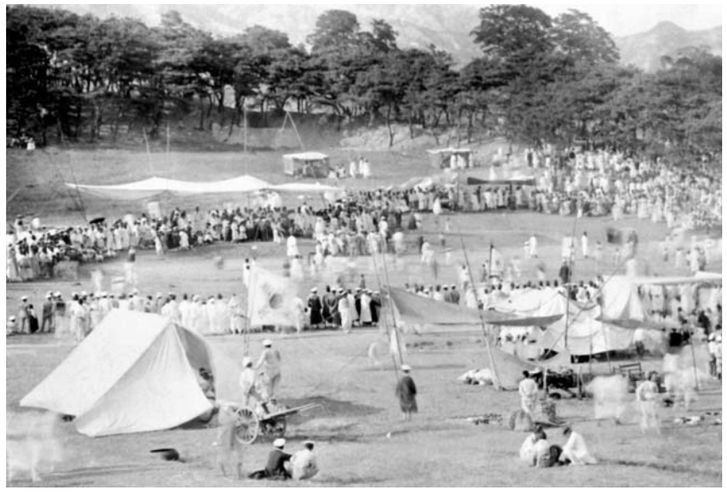
000 » -"›",(026-047) 2013.5.24 11:45 AM ˘ ` 26 sj-1 ¡» ``, ¯˝5 2400DPI 175LPI CMY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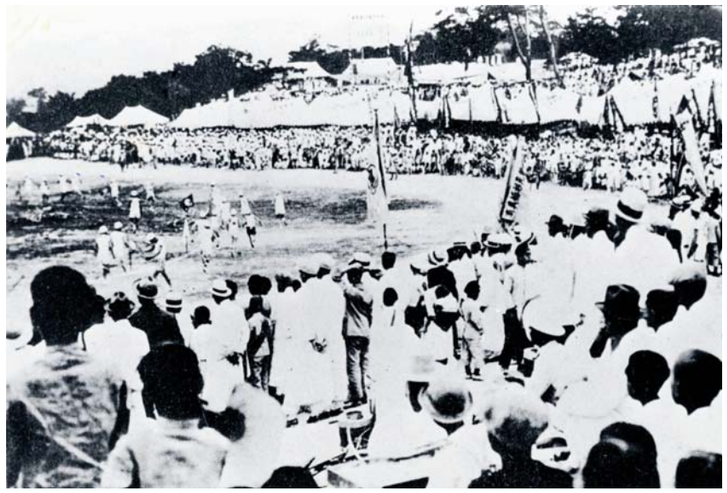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한국 육상경기 100년

000 » -">",(026-047) 2013.5.24 11:45 AM ˘ ` 28 sj-1 ¡» ``, ¯´5 2400DPI 175LPI CMYK

1900~1920년대



◀ 1907년 서울 북악산 자락에서 열린 한 연합대운동회의 모습. 구한말 근대 육상경기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운동회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운동장 가운데에 세운 태극기가 보인다. 영국인 포스터 배렴이 촬영한 사진.



◀ 1926년 중외일보 주최 연합운동회 모습.

▲ 1925년에 완공된 경성운동장의 1935년 무렵 모습. 트랙 등을 갖춘 한국 최초의 근대식 운동장이었다.
◀ 경성운동장이 완공되기 전 각종 체육대회가 열린 훈련원 운동장. 야구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
▶ 양정고보 육상경기부와 학교 관계자들이 1926년 전조선 중등학교 대항 육상경기대회 우승 직후 기념촬영을 했다.

국제

1896

아테네에서 열린 첫 근대 올림픽대회.

1904

제3회 세인트루이스 올림픽대회.

1908

제4회 런던 올림픽대회.

1920

제7회 안트베르펜 올림픽대회.

1924

제8회 파리 올림픽대회.

1928

제9회 암스테르담 올림픽대회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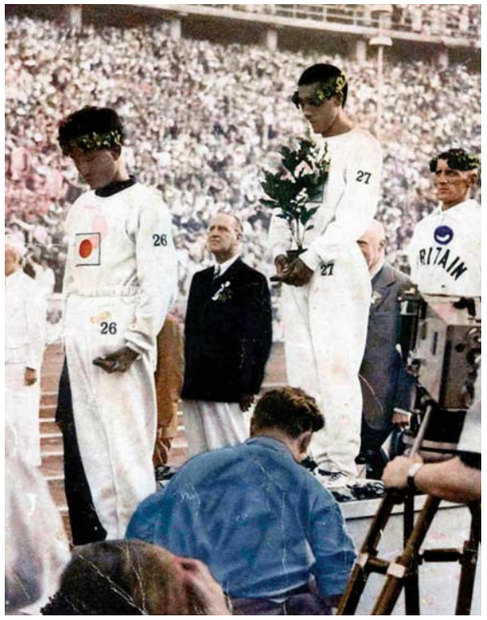
000 » -">",(026-047) 2013.5.24 11:45 AM ˘ ` 30 sj-1 ¡» ``, ¯"5 2400DPI 175LPI CMYK

1930년대

◀ 1932년 4월 도쿄~요코하마 왕복 역전경주대회에서 우승한 양정고보팀.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손기정, 뒷줄 맨 오른쪽이 남승룡이다.

◀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대회 마라톤에 참가한 김은배(왼쪽)와 권태하.

▶ 1935년 조선신궁경기대회 마라톤에서 역주하고 있는 손기정. 이 대회에서 1위를 했다.



◀ 1936년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으나 고개를 숙인 채 나라 잃은 설움을 표현한 남승룡(맨 앞)과 손기정(가운데).

▶ 배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달리는 손기정의 모습(오른쪽).

◀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 금메달.

▶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 우승 부상으로 받은 투구.

국제

1932

제10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대회 메인 스타디움.

1936

제11회 베를린 올림픽대회 개막식.

1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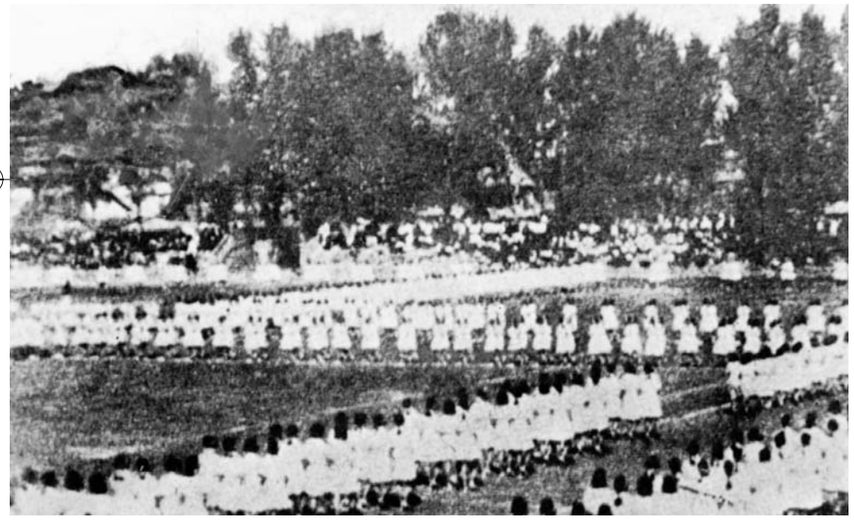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피에르 쿠베르탱 사망.

000 » -">",(026-047) 2013.5.24 11:45 AM ˘ ` 32 sj-1 ¡» ``, ¯˝5 2400DPI 175LPI CMY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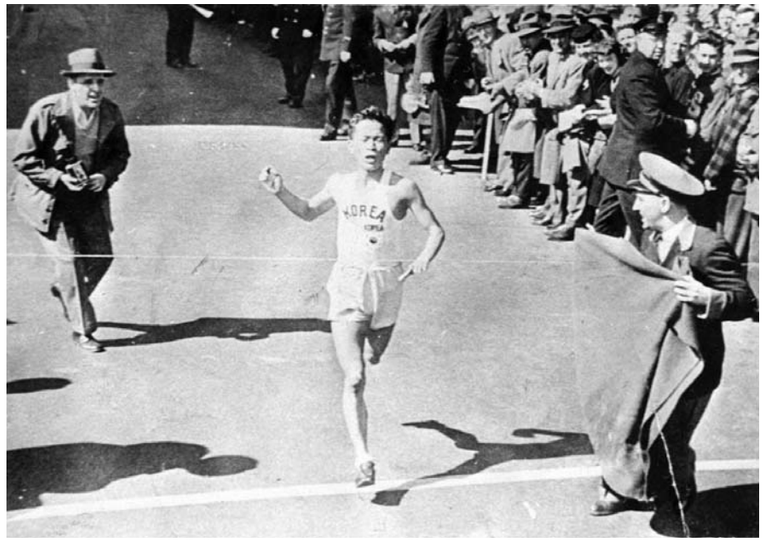
1940년대

◀ 1945년 10월 27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자유해방 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에서 기수로 나선 손기정 선수가 태극기를 든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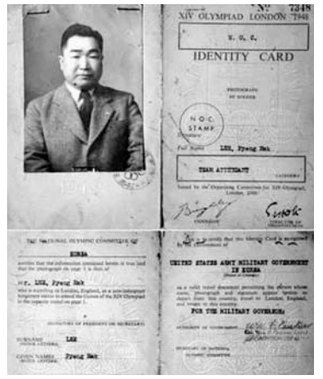
▶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우승한 지 꼭 10년이 되는 1946년 8월 9일 서울 덕수궁에서 당시의 시상식이 재현됐다. 월계관을 쓴 손기정이 시상대에 서 있고 백범 김구(오른쪽)가 남승룡(가운데)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 1947년 제2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처음으로 매스게임이 등장했다.



◀ 1947년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서윤복이 2시간 25분 39초로 1위를 했다.



◀ 광복 후 처음으로 태극기를 앞세우고 참가한 1948년 런던 올림픽대회. 기수는 손기정 선수.

▶ 1948년 런던 올림픽대회에 한국 선수단을 이끌고 참가한 이병학 총감독의 ID 카드.

국제

1940

태평양전쟁으로 도쿄 올림픽대회 무산.

1944

제2차세계대전으로 런던 올림픽대회 무산.

1948

제14회 런던 올림픽대회가 열린 메인스타디움.

1949

한국에서도 육상경기에 스타팅 블록 도입되었다.

000 » -">",(026-047) 2013.5.24 11:46 AM ˘ ` 34 sj-1 ¡» ``, ¯˝5 2400DPI 175LPI CMYK

1950년대

◀ 1950년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1~3위를 휩쓴 한국 선수단. 오른쪽부터 코치 손기정과 우승자인 함기용, 2위 송길윤, 3위 최윤칠 등이 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다.

▶ 1952년 헬싱키 올림픽대회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의 입촌식 장면.

◀ 한국 선수단이 1954년 제2회 마닐라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에 입장하고 있다.

◀ 1950년대 전천후 철각 최윤칠이 1954년 마닐라 아시아경기대회 1500m에서 우승한 뒤 시상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

▶ 1954년 마닐라 아시아경기대회 1만m에서 우승한 최충식.

◀ 1958년 도쿄 아시아경기대회 남자 5000m에서 한승철(70번)이 역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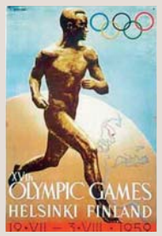
▶ 1958년 도쿄 아시아경기대회 마라톤에서 이창훈이 역주하는 모습. 2시간 32분 55초로 1위를 했다.

국제

1951

제1회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 로고.

1952



제15회 헬싱키 올림픽대회 포스터.

1954

제2회 마닐라 아시아경기대회 로고.

1956

제16회 멜버른 올림픽대회 메달.

1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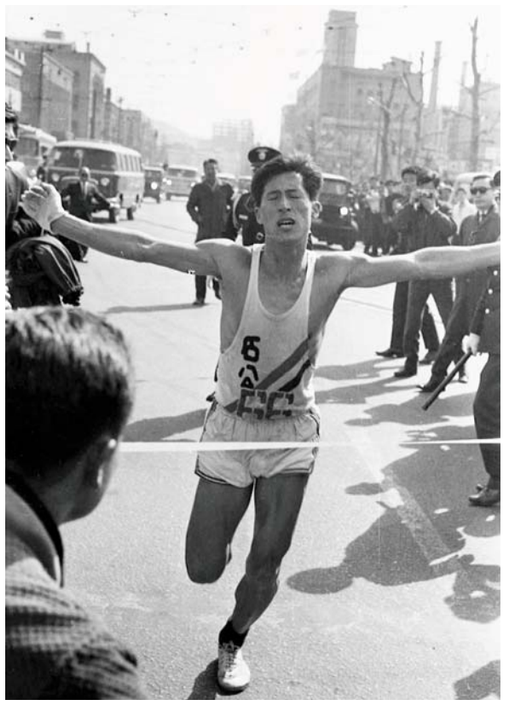
제3회 도쿄 아시아경기대회.

1959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서 유니버시아드란 명칭 처음 사용.

000 » -">",(026-047) 2013.5.24 11:46 AM ˘ ` 36 sj-1 ¡» ``, ¯˝5 2400DPI 175LPI CMYK

1960년대



◀ 한명희가 1966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여자 400m에서 준우승한 뒤 시상대에서 은메달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

▶ 김복래가 1966년 제37회 동아마라톤에서 20분의 벽을 깨뜨리며 우승했다.

▲ 1969년 10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50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서 펼쳐진 매스게임.

◀ 보스턴마라톤대회 우승자인 서윤복 선수가 제5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최종 주자로 성화 점화를 하고 있다.

▶ 1969년 제1회 홍콩 국제마라톤대회에서 1위를 한 김차환. 그는 이듬해 3월 동아마라톤에서 2시간 17분 34초 4로 18분의 벽을 허물었다.

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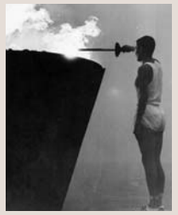
1960

제17회 로마 올림픽대회 포스터.

1962

제4회 자카르타 아시아경기대회 시상식.

1964



제18회 도쿄 올림픽대회 성화 점화.

1967

도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식.

1968

제19회 멕시코시티 올림픽대회.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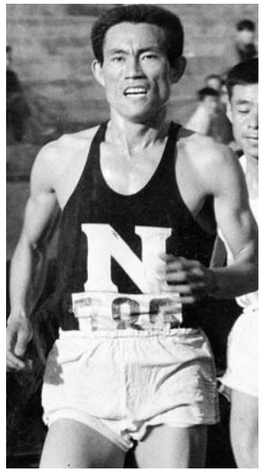
미국 딕 포스베리가 높이뛰기에서 '배면뛰기'를 처음 시도해 2m 24로 1위.

000 » -">",(026-047) 2013.5.24 11:46 AM ˘ ` 38 sj-1 ¡» ``, ¯´5 2400DPI 175LPI CMYK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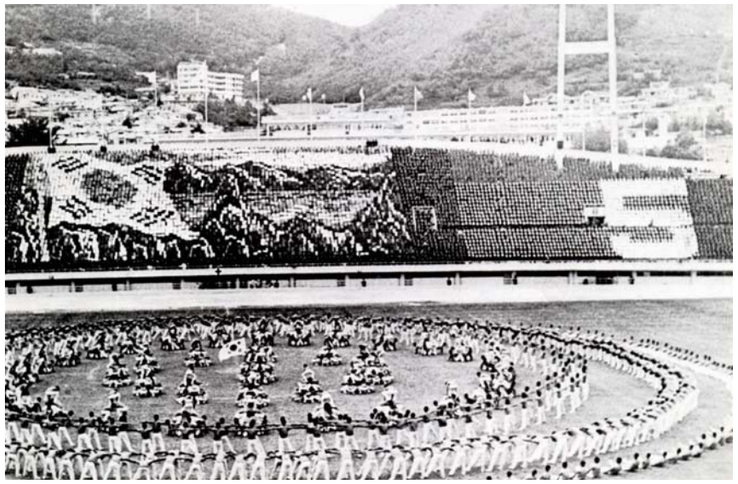
사진제공 · 백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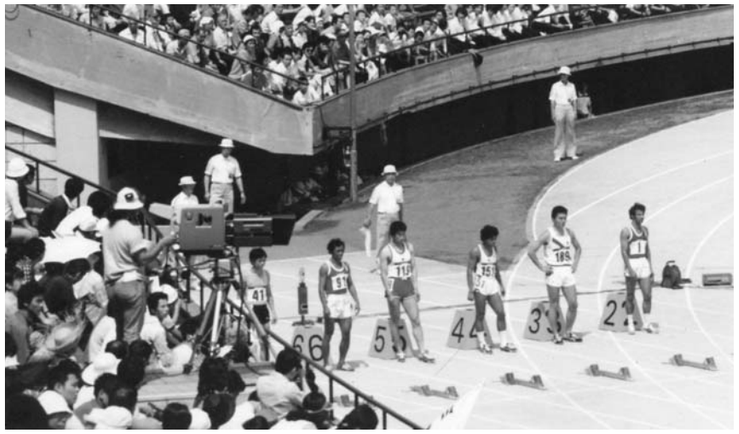
◀ 한국 여자 포환던지기의 전설 백옥자가 1974년 테헤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하며 시상대 맨 위에 섰을 때의 모습.



◀ 1970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1만m에서 동메달을 딴 박봉근.

▶ 1972년부터 전국체육대회에서 초등부와 중등부가 분리돼 전국소년체육대회(소년체전)가 별도로 열렸다. 사진은 1978년 소년체전 성화 점화 장면.





▲ 1976년 부산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 1979년 도쿄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100m 달리기에서 스타트 전 서말구.

국제

1970

제6회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메인스타디움.

1972

제20회 뮌헨 올림픽대회 개막식.

1974

제7회 테헤란 아시아경기대회에 개막식과 한국 선수단.

1976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대회 한국 선수단.

1978

킬라닌 IOC위원장(가운데), 스포츠에 대한 정치적 간섭 배격 선언.

000 » -">",(026-047) 2013.5.24 11:46 AM ˘ ` 40 sj-1 ¡» ``, ¯´5 2400DPI 175LPI CMYK

1980년대

◀ 김양곤은 1982년 제9회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 남자 마라톤에서 1위를 했다.

▶ 제9회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 남자 창던지기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양은녕.

◀ 한국의 스프린터 장재근이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남자 200m 결선에서 1위로 들어오며 관중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 임춘애가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여자 1500m에서 경쟁 선수들을 뿌리치고 힘차게 달리고 있다.

◀ 남자 세단뛰기의 박영준은 1987년 제7회 싱가포르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16m 37을 뛰어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며 우승했다.

▼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 개막식.

국제

1980

제22회 모스크바 올림픽대회 포스터.

1981

미국의 알베르토 살라자르가 보스턴마라톤대회 및 뉴욕대회를 석권했다. 세계최고기록 2시간 8분 13초.

1983

제1회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헬싱키) 3관왕인 미국의 칼 루이스.

1984

시카고마라톤대회에서 영국의 스티브 존스가 2시간 8분 5초로 세계최고기록 수립.

1986

제10회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

1988

제24회 서울 올림픽대회.

000 » -">",(026-047) 2013.5.24 11:46 AM ˘ ` 42 sj-1 ¡» ``, ¯˝5 2400DPI 175LPI CMYK

1990년대

◀ 1990년 3월 제2회 아시아마라톤선수권대회 · 제61회 동아마라톤대회에서 12분의 벽을 넘어서며 우승한 김완기.

▶ 1990년 제11회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 남자 1500m에서 은메달을 딴 김봉유는 이듬해 4월 같은 종목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우승한 황영조(가운데).

▲◀ 이봉주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3초 차 2위로 들어오며 V자를 그려 보이고 있다.

▲▶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아경기대회 800m에서 이진일이 1위로 들어오는 모습.

◀ 1998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여자 창던지기에서 우승한 이영선이 시상대에 올라 관중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국제

1990

제11회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 응원전.

1992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 마라톤.

1994

미국의 르로이 버렐이 100m에서 9초 85로 세계신기록 수립.

1995

쿠바 이반 페드로소가 멀리뛰기에서 8m 96으로 세계신기록. (풍속초과 비공인)

1996

Atlanta 1996

제26회 애틀랜타 올림픽대회 포스터.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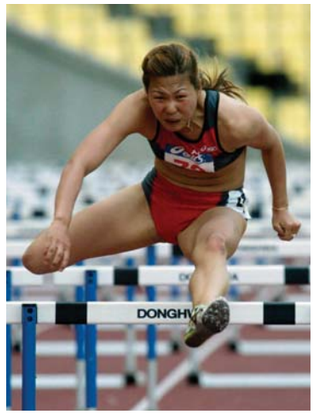
제13회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000 » -">",(026-047) 2013.5.24 11:46 AM ˘ ` 44 sj-1 ¡» ``, ¯˝5 2400DPI 175LPI CMYK

2000년대

◀ 2000년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여자 20km 경보 첫 실시. 가운데는 한국의 김미정.

▶ 2001년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51년만에 한국에 우승을 안겨준 이봉주.



◀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남자 110m 허들에서 동메달을 딴 박태경.

▶ 2004년 부산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16년 만에 여자 100m 허들에서 13초 47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한 이연경은 2005년 제34회 전국종목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13초 47로 자신이 세운 한국기록을 0.09초 앞당겼다. 사진은 2005년 대회 때 모습.

◀ 2005년 제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20년 만에 200m 역대 2위를 기록한 전덕형.

▶ 2008년 광주에서 열린 한국그랑프리에서 장대높이뛰기를 하고 있는 임은지.

◀ 2010년 제62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부 원반던지기에서 53m 22를 던져 24년 만에 한국기록을 경신한 이연경.

▶ 2010년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100m에서 김국영이 10초 23의 기록으로 31년 만에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국제

2000

자크 로게 8대 IOC 위원장 선출

2004

제28회 아테네 올림픽대회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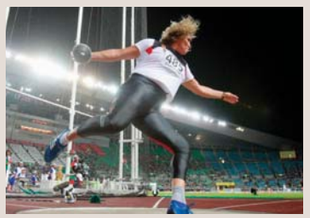
2005

여자 3000m 장애물레이스 올림픽대회 종목으로 채택.

2006

세계 도핑방지 심포지엄 개최.

2007



8월 오사카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원반던지기에서 우승한 독일의 프랑카 디츠슈.

2009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 남자 100m에서 9초 58로 세계신기록.

000 » -">",(026-047) 2013.5.24 11:46 AM ˘ ` 46 sj-1 ¡» ``, ¯˝5 2400DPI 175LPI CMYK

2010~2011년

사진제공 · 연합뉴스

◀ 2010년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남녀 멀리뛰기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딴 김덕현(왼쪽)과 정순옥.

사진제공 · 연합뉴스

◀ 2010년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남자 110m 허들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류시앙과 3위를 한 박태경(오른쪽).
▶ 2011년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마라톤에서 1위로 들어오는 지영준.

◀ 2011년 8월 27일 오후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제13회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막식 행사.
▶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20km 경보에서 6위를 하며 세계무대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김현섭.

▶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00m 결선 모습.

국제

2010

2010년 제16회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에서 태극기를 앞세우고 입장하는 한국 선수단.

2010

2010년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에서 대회기를 흔드는 송영길 인천 시장. 제17회 대회는 2014년 인천에서 열린다.

2011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2011

자메이카의 남자 4x100 릴레이 팀이 37초 04로 세계신기록 수립.

2011

2011년 9월 베를린마라톤 대회에서 케냐의 패트릭 마카우가 2시간 03분 38초의 세계최고기록 수립.